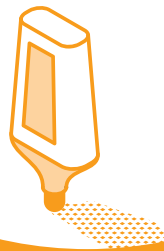


바른답·알찬풀이



Lesson 1 You and I Become "We"

Vocabulary Practice

p. 111

A improvement B ④ C ② D ① E sign up for

- A** 논쟁하다 : 논쟁 = 개선하다 : 개선
→ 접미사 -ment를 활용한 '동사 : 명사'의 관계이므로, 빈칸에는 improvement가 적절하다.
- B** • 긴 토론 끝에, 위원회는 그 제안을 승인했다.
• 회사는 노조와 임금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 '토론'과 '논의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④ debate이다.
- C** 특히 직업상 또는 사업상 같이 일하는 사람
→ 주어진 영영 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② colleague(동료)이다.
- D** → '기꺼이 ~하다'의 의미는 be willing to이다.
- E**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강의를 등록해야 한다.
→ enroll in은 '~에 등록하다'라는 의미로 sign up for로 바꿔 쓸 수 있다.

Dialogue Practice

p. 115

A (1) I hope you can talk (2) I know how you feel B ③
C ⑤ D (B)-(D)-(A)-(C)

- A** → (1) I hope ~은 '~을 바라다'라는 의미로 희망의 표현이다.
(2) I know how you feel.은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 B** A: 엄마,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조금 긴장돼요.
B: 네가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거 알아. 내일 시험 잘 보기를 바란다.
→ 내일 시험이 있어 긴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격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희망을 나타내는 ③ I hope you do well on your test tomorrow.가 적절하다.
① 시험 보기 전에 교실에서 만나.
② 내가 시험을 본 후에 네가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④ 나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어.
⑤ 네가 오늘 시험을 잘 봐서 정말 자랑스럽다.
- C** A: 비행기가 또 연착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짜증나.
B: 네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해.

→ 비행기가 지연된 상황으로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비슷한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내가 너라면 짜증날 것 같아.'이다.

① 너는 곧 그곳에 갈 거야.

② 나는 지금 만족해.

③ 너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 수 있어.

④ 나의 배달 일정이 지연되었어.

- D** (B) 이런, 또 버스를 놓쳤어요! 회사에 늦을 것 같아요.
(D) 당신 마음 알아요. 버스를 놓치는 건 최악이네요.
(A) 맞아요. 오늘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C) 상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버스를 놓친 상대방에게 공감을 하고, 조언을 하는 상황이므로 가장 적절한 순서는 (B) - (D) - (A) - (C)이다.

Grammar Practice

p. 116

A (1) who (2) that B ③ C Baked D ③ E ⑤

- A** (1) Raymond는 내가 독서 동아리에서 만난 소년이다.
(2) 아침에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스트레칭이다.
→ (1) 선행사가 the boy(사람)이므로 who가 적절하다.
(2) 선행사가 The first thing(사물)이므로 that이 적절하다.
- B** → ③에서 명사 hair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소유격 whose이므로 목격격 관계대명사 whom을 whose로 고쳐야 한다.
① 나는 이름이 Fiona인 소녀를 알고 있다.
② Jack은 나를 많이 도와주는 친구이다.
③ 나는 털이 매우 부드러운 고양이와 있다.
④ 그것은 David가 산 자전거인가요?
⑤ 한국 문화에 관한 잡지가 있나요?
- C** → 문장의 주어가 the bread이고, 빵은 '구워지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지닌 과거분사를 써야 한다.
- D** 그가 테니스를 치는 동안에 다쳤다.
→ '접속사 + 주어 + 동사'를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동사가 진행형인 경우 Being은 생략하고 현재분사만 남긴다.
- E** 그는 음악을 들으면서 설거지를 했다.
→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설거지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⑤ While he was listening to music이 가장 적절하다.

A ⑤ B how dogs would respond to human gestures

C ② D ② E ④ F ④

A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화 생물학자 Edward Wilson 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는 길에 이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친절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서 이곳에 데려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는 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다정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 (A)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의미는 「have trouble -ing」의 형태로 사용되므로 locating이 적절하다.

(B) ‘-한 감정을 유발하는’이라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현재 분사형을 쓴다.

(C) 뒤에 목적어가 있으므로 타동사 raises가 적절하다. rise는 ‘증가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로 목적어가 필요 없다.

[B-C] Brian Hare는 늑대와 비교하여 개가 인간의 몸짓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 늑대는 개와 같은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닥에 두 개의 컵을 놓고 그중 하나에만 음식을 숨겼습니다. 그가 음식이 있는 컵을 가리키자 개들은 쉽게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그의 몸짓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무작위로 컵을 골랐습니다. Hare 박사는 인간의 몸짓을 읽는 개의 능력이 개가 늑대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늑대와 달리 개는 인간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밀감이 발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진화 생물학자에 따르면 이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들은 이 두 종의 공통된 조상 중 인간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한 종은 개로 진화했고, 그렇지 않은 종은 늑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Hare 박사는 개들의 친근한 본성이 아마도 그들에게 늑대들보다 더 많은 개체 수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한 생존의 이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 →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일부가 될 때는 「의문사(how) + 주어(dogs) + 동사(would respond)」의 어순으로 쓴다. ‘-에 반응하다’는 respond to이다.

C → 개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밀감이 생존에 끼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② survival advantage(생존의 이점)가 적절하다.

- ① 상대적인 약점 ③ 개인적인 인기도
④ 심리적인 편안함 ⑤ 다른 조상

D 침팬지들이 알고 있던 짝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짝과 짝지어졌을 때 침팬지들은 대개 음식을 얻는 데 실패했고, 가끔 성공했을 때 그들은 짝과 음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보노보들은 침팬지들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개체와 짝을 이루는지에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했고 더 가까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연구는 보노보들이 협력적이고 친절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본성이 그들의 종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어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없었다면, 그들은

멸종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 주어진 문장에서의 연결사 on the other hand를 통해서 앞 내용과 대조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노보 실험 내용이 아닌 침팬지에 대한 내용 뒤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또한 ② 뒤 문장의 대명사 They가 주어진 문장의 The bonobos를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②이다.

[E-F] 이제 우리 자신 즉, 호모 사피엔스에게 관심을 돌려 봅시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네안데르탈인은 약 4만 년 전까지 호모 사피엔스와 함께 존재했고, 지능이 뛰어나고 호모 사피엔스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도구와 불을 만들 수 있었고, 잘 발달된 근육과 넓은 어깨를 가진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살아남고 번성한 것은 바로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네안데르탈인이 더 작은 집단에서 사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의 조상들은 협력과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을 금지하는(→ 촉진하는) 더 큰 공동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차이는 호모 사피엔스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면서,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경쟁력 있는 이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E →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을 비교하면서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을 하게 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호모 사피엔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다.

- ① 불 지피기에 관한 역사적 배경
② 호모 사피엔스의 멸종 원인
③ 조상을 현대 인류와 비교하기
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공동체 발달의 영향

F → 문맥상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는 데 기여한 긍정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④ prevented(금지했다, 막았다)를 promoted(촉진했다) 등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단원평가 1회

pp. 122-123

01 ③ 02 ③ 03 ④ 04 Your team deserved to 05 ⑤
06 ④ 07 how friendliness is related to survival 08 ②
09 ③ 침팬지 ⑥ 보노보 10 ④ 11 ④ 12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협력하고 지식을 자유롭게 교환하였다.

01 → ③은 ‘멸종된 : 멸종’의 의미로 ‘형용사 : 명사’의 관계이며, 나머지는 ‘동사 : 명사’의 관계이다.

02 A: Emma, 뭐 하고 있니?

B: 안녕하세요, 아빠. 학교 웹사이트에서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요.

A: 그렇구나.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니?

B: 토론 동아리에 가입할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A: 좋은 선택인 것 같구나.

→ 빈칸 대화의 답변으로 ‘토론 동아리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어느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니?’이다.

① 무엇을 읽을 생각이니?

② 너는 왜 너의 동아리에 가입했니?

④ 토론 주제는 무엇이니?

⑤ 사회 문제를 함께 공부하자!

03 A: Andy,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고민거리가 뭐니?

(C) Brian이랑 그 그룹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B) 오, 이런. 네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니?

(D)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개가 제 몫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저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

(A) 네가 어떤 기분인지 이해해. 그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건 어떨까?

→ Andy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조언을 하는 내용의 대화문이다. 무엇이 고민인지 묻는 주어진 말 뒤에 속상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C)가 오고, (C)에서 언급한 문제 상황을 질문하는 (B),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는 (D), 그 말에 I understand how you feel. 표현을 통해서 공감을 해 주는 (A)가 와야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순서는 ④ (C) - (B) - (D) - (A)이다.

04 A: Jessie, 아직도 우리가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

B: 너희 팀은 우승할 자격이 있었어.

→ ‘할 자격이 있다, ~을 받을 만하다’의 뜻으로 동사 deserve을 쓴다.

05 → ⑤ 집이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be located)’ 것이므로, 수동형 분사구문 (Being) Located가 되어야 한다.

①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걸어갔다.

② 급하게 작성되어 에세이에 오류가 많다.

③ 천둥소리에 놀라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④ 영화가 잘 만들어져서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다.

⑤ 집이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다.

06 Brian Hare는 늑대와 비교하여 개가 인간의 몸짓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 늑대는 개와 같은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닥에 두 개의 컵을 놓고 그중 하나에만 음식을 숨겼습니다. 그가 음식이 있는 컵을 가리키자 개들은 쉽게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그의 몸짓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무작위로 컵을 골랐습니다. Hare 박사는 인간의 몸짓을 읽는 개의 능력이 개가 늑대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A) ‘-와 비교하여’는 compared to이다.

(B) 문맥상 개들이 그것을 ‘쉽게’ 찾은 것이므로 부사가 와야 한다.

(C) 앞에 주어와 동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므로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와야 한다.

[07-09] 다정함이 생존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are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침팬지와 보노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의 협력적인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Hare 박사의 팀은 널빤지 위에 있는 음식에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개체가 빗줄의 양쪽 끝을 동시에 잡아당겨야 하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침팬지들이 알고 있던 짝과 함께 할 때, ① 그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짝과 짝지어졌을 때 침팬지들은 대개 음식을 얻는데 실패했고, 가끔 성공했을 때 그들은 짝과 음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보노보들은 침팬지들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개체와 짝을 이루는지에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했고 ② 그들은 더 기꺼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연구는 보노보들이 협력적이고 친절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본성이 그들의 종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어왔다고 말합니다.

07 → 의문사 how가 이끄는 절이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의문사(how) + 주어(friendliness) + 동사(is related to)」의 어순으로 쓴다. ‘-와 관련이 있다’는 be related to이다.

08 → 침팬지와 보노보의 실험을 소개하고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론적으로 보노보의 협력적이고 친절한 본성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09 → ③은 앞 절에 나온 the chimpanzees를, ①은 앞 문장에 나온 The bonobos를 가리킨다.

[10-12] 이제 우리 자신 즉, 호모 사피엔스에게 관심을 돌려 봅시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네안데르탈인은 약 4만 년 전까지 호모 사피엔스와 함께 존재했고, 지능이 뛰어나고 호모 사피엔스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도구와 불을 만들 수 있었고, 잘 발달된 근육과 넓은 어깨를 가진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살아남고 번성한 것은 바로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네안데르탈인이 더 작은 집단에서 사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의 조상들은 협력과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을 촉진하는 더 큰 공동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차이는 호모 사피엔스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면서,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경쟁력 있는 이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10 → 주어진 문장의 these attributes는 문맥상 네안데르탈인의 자질을 알 수 있고, 연결사 however를 통해서 주어진 문장부터 글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네안데르탈인의 이로운 자질에 대한 설명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공동체 생활의 이점으로 화제가 전환되는 ④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1 → ④ Neanderthals tended to live in smaller groups.를 통해서 네안데르탈인은 더 큰 집단이 아니라 더 작은 집단에서 사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 → 밑줄 친 These social differences가 의미하는 것은 앞 문장에서 술되어 있는 내용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협력하고 지식을 자유롭게 교환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01 ① 02 ⑤ 03 ③ 04 ② 05 ① 06 ⑤ add → adds
07 ② 08 ③ 09 population 10 ③ 11 ⑤ 12 the two
are genetically similar/similar genetically, they are
different in nature

- 01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점차 변화시키다
→ 영영 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① adapt(적응하다)이다.
② 수행하다 ③ 인식하다 ④ 공유하다 ⑤ 접근하다
- 02 A: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거 축하해.
B: 정말 고마워. 아직도 우리가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
A: 너희 팀은 우승할 자격이 있었어. 다섯 명이 그렇게 조화롭게 춤추는 모습 정말 멋졌어.
B: 쉽지 않았어. 같은 루틴을 백 번은 했을 거야.
A: 백 번! 이제야 왜 그 공연이 완벽했는지 알겠네.
B: 다른 팀원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잘할 수 없었을 거야.
→ 빈칸 바로 앞에서 연습을 백 번이나 한 것에 놀라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팀이 완벽을 기하기 위해 연습에 쏟은 노력을 인정하는 말인 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나는 너의 팀이 우승하면 좋겠어.
② 너는 거기에서 다른 팀들이 공연하는 것을 봐야 해.
③ 우리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④ 경쟁이 치열할수록 네가 받는 스트레스도 심해.
- 03 A: 그거 알아? 우리 어메이징 테마파크로 현장 학습 갈 거야!
(C) 정말? 너무 좋은데! 그게 언제야?
(A) 다음 달,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갈 거야.
(D) 좋아!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거기에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B) 롤러코스터도 꼭 타 보고 거기에 있는 다른 놀이기구들도 다 타 봐야지.
→ 테마파크로 현장 학습을 간다고 말하는 주어진 말 뒤에 언제 가는지를 물어보는 (C)가 오고, 다음 달이라고 대답을 하는 (A)가 온 뒤,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물어보는 (D)와 이에 답하는 (B)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대화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C) - (A) - (D) - (B)이다.
- 04 → ② 선행사가 사람인 The economists이고 뒤에 오는 문장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또는 that 이 와야 한다.
① 세계 기록을 깼던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② 우리가 인터뷰한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경제가 변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③ 좋은 서비스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알고 있지?
④ 너는 갈등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⑤ 학생들은 선생님이 추천한 책을 구입했다.

[05-06] 우리의 경쟁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거나 가장 강한 사람만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견해를 제안합니다.

다. 친절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A) 위안이 되는 생각이 아니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우리의 타고난 친절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는 모두 이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메시지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꽃다발로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꽃이 나머지 꽃들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을 더해주듯이 각각의 사람은 (B) 협력할 때 더 아름다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05 → (A)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타고난 친절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위안이 되는'의 의미를 가진 comforting이 적절하다.
(B) 꽃다발의 꽃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듯이 우리가 '협력할'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cooperate가 적절하다.
② 어려운 - 공유하다 ③ 불편한 - 경쟁하다
④ 불안한 - 성공하다 ⑤ 도움이 되는 - 도전하다

06 → ⑤ 문장의 주어가 each flower이므로 단수 취급해야 하고, 본문의 시제가 현재이므로 adds로 써야 한다.

[07-09] Brian Hare는 늑대와 비교하여 개가 인간의 몸짓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 늑대는 개와 같은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닥에 두 개의 컵을 놓고 그중 하나에만 음식을 숨겼습니다. 그가 음식이 있는 컵을 가리키자 개들은 쉽게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그의 몸짓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무작위로 컵을 골랐습니다. Hare 박사는 인간의 몸짓을 읽는 개의 능력이 개가 늑대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늑대와 달리 개는 인간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밀감이 발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진화 생물학자에 따르면 이 설명은 비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들은 이 두 종의 공통된 조상 중 인간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한 종은 개로 진화했고, 그렇지 않은 종은 늑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Hare 박사는 개들의 친근한 본성이 아마도 그들에게 늑대의 그것(개체 수)보다 더 많은 개체 수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한 생존의 이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7 → 개와 늑대를 비교하여 인간의 몸짓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 준다. 마지막 문장에서 친근한 개가 늑대보다 생존에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친근한 동물: 개가 어떻게 늑대를 능가하게 되었는가'이다.

- 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법
③ 진화는 우수한 유전적 특성을 선호한다
④ 동물 실험의 윤리와 권리
⑤ 말 이상의 것: 인간 몸짓의 힘

08 → ③ 늑대와 달리 개는 의사소통 능력과 친밀감이 발달했다는 Hare 박사의 설명을 언급한 후, 진화 생물학자들의 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Hare 박사의 설명이 일리가 있다는 내용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irrational(비이성적인)을 reasonable(합리적인)과 같은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09 → 개와 늑대의 개체 수(population)를 비교급 표현을 이용하여 비

교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명사 that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명사 population이다.

[10-12] 다정함이 생존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are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침팬지와 보노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비록 그 둘은 유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의 협력적인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Hare 박사의 팀은 널빤지 위에 있는 음식에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개체가 밧줄의 양쪽 끝을 동시에 잡아당겨야 하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침팬지들이 알고 있던 짝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A) 그러나 새로운 짝과 짝지어졌을 때 침팬지들은 대개 음식을 얻는 데 실패했고, 가끔 성공했을 때 그들은 짝과 음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B) 반면에, 보노보들은 침팬지들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개체와 짝을 이루는지에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했고 더 가까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10 → (A)의 앞에서는 침팬지가 알고 있던 짝과 짝지어졌을 때 긍정적 결과에 대한 설명이, 뒤에서는 새로운 짝과 짝지어졌을 때 부정적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However가 적절하다.

(B)의 앞에서는 침팬지와 관련된 실험 내용을, 뒤에서는 보노보와 관련된 실험 내용을 비교하여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on the other hand가 적절하다.

11 → ⑤ 주어 they는 앞에 나온 The bonobos를 가리키며, 보노보가 짝지어지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과거분사 paired로 고쳐야 한다.

12 → 부사절 접속사 Although로 시작하는 문장이므로 부사절의 주어는 the two로, 뒤 주절의 주어는 the two를 받는 대명사 they로 쓴다. 형용사 similar와 different는 be동사와 함께 쓰이므로 복수 주어와 현재시제에 맞게 are로 쓴다.

Lesson 2 Open a Book, Open the World

Vocabulary Practice

p. 127

A painful B ⑤ C ① D ③ E despair

A → 주어진 단어의 관계는 ‘아름다움 : 아름다움’으로 ‘명사 : 형용사’의 관계이므로 명사 pain의 형용사형 painful을 써야 한다.

B • 농담을 듣자마자, 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 배우가 갑자기 노래를 시작해서 관객이 놀랐다.
→ burst out laughing은 ‘웃음을 터뜨리다’이고, burst into song은 ‘노래를 갑자기 부르다’라는 의미이다.

C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가족의 역사
→ 영영 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계보, 족보’를 뜻하므로 ① genealogy가 적절하다.

- D • 우리는 밤 10시에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출발했다.
• 누군가를 뵈히 쳐다보는 것은 무례하다.
→ set off는 ‘출발하다’이고, stare at은 ‘~을 뵈히 쳐다보다’라는 의미이다.
- E → ‘절망에 빠져서’는 in despair로 표현한다.

Dialogue Practice

p. 131

A (1)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2) Make sure not to forget (3)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4) between the lines to figure out the message B ⑤

C (B) - (A) - (D) - (C)

- A → (1) ‘~에 관심이 있다’는 be interested in이다.
(2) ‘~하지 않도록 해’라는 ‘Make sure not to + 동사원형’으로 표현한다.
(3) ‘~하도록 해’는 ‘Make sure to + 동사원형’으로 표현한다.
(4)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다’는 read between the lines이고, ‘~하기 위해’는 to부정사로 표현한다.

B A: 자동차 여행을 위해서 간식을 좀 싸야겠어.

B: 물론이지. 물 가져가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해.

A: 그럼! 안 잊을게!

→ 빈칸 뒤에 나오는 OK! I won't!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하지 않도록 해’라고 당부하는 표현인 ⑤가 적절하다.

① 과자 대신 과일을 가져갈게!

② 나는 출발하기 전에 기름을 채워야 해.

③ 짐 확인했니?

④ 누가 이 도로 사진을 찍은 건지 궁금하네.

C (B) 밤하늘에 관심이 있니?

(A) 물론이야. 나는 별들에 대해 항상 궁금했어. 밤하늘을 탐구하는 것은 너무 재미있어.

(D) 언제부터 별들에 관심이 있었니?

(C) 내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 아빠가 나에게 별을 보여 주시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곤 했거든.

→ 밤하늘에 관심이 있냐고 묻는 (B)로 시작해서 그에 대한 답인 (A)로 이어지고, (A)의 말에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냐고 추가 질문을 하는 (D)가 온 다음, 그에 대한 답인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Grammar Practice

p. 132

A (1) large (2) easily (3) serious B ① C as if/as though

D (1) how beautifully the flowers bloomed (2) how important a regular routine is (3) how soft the kitten's fur felt E The man talks as if he were my father.

- A** (1) 내 토마토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봤니?
 (2) 우리는 그가 자전거를 얼마나 쉽게 배우는지 놀랐다.
 (3) 사고가 난 후에 의사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환자에게 설명했다.
 → (1) 동사 get은 형용사와 함께 쓰여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large가 와야 한다.
 (2) 동사 learned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 easily가 와야 한다.
 (3) was의 보어가 필요하므로 형용사 serious가 와야 한다. 부사는 be동사의 보어가 될 수 없다.
- B** • 그녀는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무대를 가로지르며 춤을 췄다.
 • 그녀는 마치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 ‘마치 ~인 것처럼’의 의미인 ‘as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were’ 구문은 주절과 일치하는 시점의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쓴다.
- C** → ‘마치 ~인 것처럼’은 ‘as if/as though + 가정법 과거’로 표현한다.
- D** (1) 나는 정원에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감동받았다.
 (2) 그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3) 그녀는 고양이의 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깜짝 놀랐다.
 → (1)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라는 의미이므로 ‘how + 부사 (beautifully) + 주어 (the flowers) + 동사 (bloomed)’의 어순이 된다.
 (2) ‘규칙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의미이므로 ‘how + 형용사 (important) + 주어 (a regular routine) + 동사 (is)’의 어순이 된다.
 (3) ‘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라는 의미이므로 ‘how + 형용사 (soft) + 주어 (the kitten’s fur) + 동사 (felt)’의 어순이 된다.
- E** →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의미는 ‘as if + 가정법 과거’로 나타낸다. 시제가 현재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 the man이므로 동사 talk를 talks로 쓰고, as if 절의 be동사는 인칭에 상관없이 were로 쓴다.

Reading Practice

pp. 136-137

A ③ **B** ①, ⑤ **C** 와카파파를 복원[완성]하는 일 **D** ①

E (1) recalling (2) pressed (3) noses

- A** 한동안 할아버지는 와카파파라고 알려진 마을의 계보를 쓰느라 바빴다.
 (B) 와카파파는 그의 옛날 집에 있었다. (A) 그런데 당시 한밤중에 화재가 났고, 화재는 집을 휩쓸며 우리의 과거도 파괴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C) 절망에 빠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딸이자 나의 고모 Hiraina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 주어진 문장 다음에 와카파파는 할아버지의 옛날 집에 있었다는 내용의 (B)가 오고, 당시 갑작스런 화재로 그것이 불타다는 내용의 (A)가 온 다음, 그 때문에 할아버지가 절망에 빠져 고모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는 내용의 (C)가 오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다.

[B-C] 과거의 잿더미로부터 길을 찾아가면서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와

카파파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는 조상들의 이름을 낭송하면서 과거를 현재와 다시 한 번 만나게 했다. 마을은 조용히 하고 할아버지의 읊조림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 계보의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며, 수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때때로 기억하기 어려운 행도 있었다. 그러면 그의 목소리가 낭송 중간에 갑자기 멈췄다. 마을 전체가 다음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걱정 어린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할아버지가 와카파파의 대부분을 모으는 데 거의 2년이 걸렸으나 여전히 채워야 할 빠진 이름들이 있었다. 이제 그는 그의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그를 무루파라에 데려다주기를 원했다.

B → 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with his shaky hands라는 구문으로 보아 힘들지만 다시 와카파파를 쓰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⑤ 와카파파를 완성하기 위해 무루파라에 가는 것이지 전달해 주러 가는 것이 아니다.

C → 밑줄 친 his work는 ‘와카파파를 다시 써서 완성하는 일, 즉 와카파파를 복원하는 일’을 의미한다.

D 내가 고모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팠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다.

“보세요, 할아버지.” 내가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를 아무 데도 모시고 가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 앞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나를 쳐다봤다.

“너는 내가 이 방에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냐? 이 사방의 벽을 보면서? 와카파파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침대 끝을 꽉 부여잡고 일어서며 소리 질렀다. 느리고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를 아프게 했으나 그는 걸으려고 애를 썼다. 나는 그를 차로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고모와 함께 출발했다.

→ 할아버지는 몸이 약해서 걷기도 힘들어 손자와 딸이 말리는 상황인데도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으므로 할아버지의 성격은 ① stubborn (고집이 센)이 가장 적절하다.

E 정오가 되기 직전에 우리는 무루파라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작은 집들을 뚫히 쳐다보면서 자신의 기억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그는 방향을 틀라고 했다. 모퉁이를 돌고 나니, 우리는 한 노인이 집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할아버지를 반겨 주었으나 그의 눈에서 나는 “우리는 서둘러야 하네.”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지금 그날은 나에게 꿈처럼 느껴진다. 나는 탁자에 앉아 있던 두 노인과 그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들리던 부드러운 마오리 언어를 기억한다. 조용했던 오후부터 밤까지 내내 그들은 빠진 이름들을 기억해 냈다. 나는 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마치 과거에서 온 사람들이 두 노인의 어깨 너머로 그 작업이 정확한지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들이 멈추었다. 작업이 완성되었다. 잠시의 침묵 후에, 노인이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잘 가시게, 친구.” 그들은 울면서 서로 코를 비비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 Nani는 친구와 와카파파에 빠진 이름들을 기억해 내는 일 (recalling)을 하기 위해 무루파라에 갔고, Nani와 노인은 코(noses)

를 비비며(pressed) 작별 인사를 했다. (1)은 빈칸 앞에 전치사 on이 있으므로 동명사 형태로 쓰는 것에 주의한다.

Q1: Nani Tama는 왜 무루파라에 갔는가?

A1: 그는 친구와 함께 와카파파에 빠진 이름들을 (1) 기억해 내는 일을 하기 위해 무루파라에 갔다.

Q2: Nani Tama와 노인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했는가?

A2: 그들은 서로 (3) 코를 (2) 비볐다.

단원평가 1회

pp. 138-139

01 ① 02 ④ 03 ② 04 stood 05 Imagine how happy I was then. 06 ③ → had taught 07 ③ 08 ⑤ 09 staring 10 ③

- 01 → ① 경기에 이기고 난 후 ‘기뻐서 소리쳤다’가 자연스러우므로 밑줄 친 in despair(절망에 빠져서)는 with joy 등이 되어야 적절하다.
 ② 산불은 땅을 뒤덮는 두꺼운 재를 남겼다.
 ③ 그녀는 그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④ 태양이 지고, 산이 하늘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보였다.
 ⑤ 그녀는 친구의 귀에 비밀을 속삭이기 위해서 가까이 기댔다.

- 02 A: 청취자들에게 당신의 책에 관해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B: 물론이죠. 《알로하, 나의 친구》는 하와이 원주민 소녀와 아시아계 미국인 소년의 우정에 관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그들이 어떻게 강한 유대를 쌓아 나가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A: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B: 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화만큼 다른 문화도 존중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A: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군요.
 →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뒤에 이어지는 응답이므로, ④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군요.’가 적절하다.
 ① 나는 당신이 걱정되네요.
 ② 저는 다른 생각은 나지가 않네요.
 ③ 정말 재밌고 흥미롭겠네요!
 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03 A: 티베트의 어느 지역에서는 혀를 내미는 것이 전통적인 인사 방식이래.
 (A) 정말? 그럼, 손을 흔들거나 하이 파이브를 하는 것처럼?
 (C) 응, 맞아! 왜 티베트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가 있어.
 (D) 오, 그래? 뭘?
 (B) Lang Darma라는 이름의 잔인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검은 혀를 가지고 있었다. 티베트 사람들은 자신이 그 왕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보여 주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혀를 보여 주기 시작했다.

→ 주어진 대화에서 언급한 독특한 티베트의 인사법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A)가 오고, 맞다면서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말하는 (C)가 온 뒤, 그것이 뭐냐고 묻는 (D)와 자세히 설명하는 (B)가 오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다.

- 04 → ‘마치 -인 것처럼’의 의미로 주절과 일치하는 시점의 어떤 사실에 대해 반대로 말할 때는 「as if +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므로 stand의 과거형 stood가 알맞다.

- 05 →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how + 형용사(happy) + 주어(I) + 동사(was)」의 어순으로 쓴다.

- 06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의 낭송을 들으며 대부분 침묵 속에서 밤새도록 달렸다. 그의 낭송을 듣는 것은 이상하면서도 경이로웠다. 때때로 그는 고모에게 가르쳐 주었던 노래를 갑자기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함께 노래 부르며, 목소리를 높여 하늘을 나는 새처럼 노래를 날려 보냈다.

→ ③ ‘그가 고모에게 가르쳤던’이라는 능동 의미이므로 수동태 had been taught를 능동태 had taught로 고쳐야 한다.

- 07 내가 고모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야위었는지 보고 (A) 충격을 받았다. “보세요, 할아버지.” 내가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를 아무 데도 모시고 가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 앞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할아버지가 (B) 화가 나서 나를 쳐다봤다. “너는 내가 이 방에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냐? 이 사방의 벽을 보면서? 와카파파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침대 끝을 짚 붙어잡고 일어나서 소리 질렀다. 느리고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를 (C) 아프게 했으나 그는 걸으려고 애를 썼다. 나는 그를 차로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고모와 함께 출발했다.

→ (A) 할아버지가 많이 야윈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shocked) 것이다.

(B) 할아버지를 데려다줄 수 없다고 하니 할아버지가 화가 났을(anger) 것이다.

(C) 고통스러운 한 걸음이라고 했으므로 아프게(hurt)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8 과거의 잿더미로부터 길을 찾아가면서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와카파파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는 조상들의 이름을 낭송하면서 과거를 현재와 다시 한 번 만나게 했다. 마을은 조용히 하고 할아버지의 읊조림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 계보의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며, 수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때때로 기억하기 어려운 행도 있었다. 그러면 그의 목소리가 낭송 중간에 갑자기 멈췄다. 마을 전체가 다음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걱정 어린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 주어진 문장의 stopped in the middle of the chant로 보아, 낭송되다가 멈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멈춘 낭송이 다시 시작될 기다리는 내용 앞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9-10] 정오가 되기 직전에 우리는 무루파라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작은 집들을 뚫히 쳐다보면서 자신의 기억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그는 방향을 틀라고 했다. 모퉁이를 돌고 나니, 우리는 한 노인이 집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할아버지를

반겨 주었으나 그의 눈에서 나는 “우리는 서둘러야 하네.”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지금 그날은 나에게 꿈처럼 느껴진다. 나는 탁자에 앉아 있던 두 노인과 그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들리던 부드러운 마오리 언어를 기억한다. 조용했던 오후부터 밤까지 내내 그들은 빠진 이름들을 기억해 냈다. 나는 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마치 과거에서 온 사람들이 두 노인의 어깨 너머로 그 작업이 정확한지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들이 멈추었다. 작업이 완성되었다.

09 → 주절의 주어 He와 능동의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staring으로 써야 한다.

10 → ① 정오가 되기 직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② Nani는 친구네 집 가는 길을 묻는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기억을 더듬었다.

④ 다른 사람들이 Nani와 친구의 작업을 어깨 너머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⑤ Nani와 친구는 이름을 모두 기억해 내어 와카파파를 완성했다.

단원평가 2회

pp. 140-141

01 faintly **02** ② **03** ① **04** Sara felt as if unseen eyes were watching her every move. **05** how important the role of parents is **06** ④ **07** drive, finish **08** ② **09** ② **10** ②

01 → ‘능숙한: 능숙하게, 솜씨 있게’의 형용사와 부사의 관계이다. -ly를 붙여 부사를 만든다.

02 A: 나는 시에 정말 관심이 많아.

B: 정말? 멋지구나. 개인적으로 난 시가 좀 지루하거든. 나는 소설이 더 좋아.

(B) 음, 내 생각에는 시도 소설처럼 이야기를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인 것 같아.

(A) 그래도 가끔은 너무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렵더라.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행간을 파악해야 하잖아.

(D)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지만, 그게 바로 시의 매력이야. 정답이 없고, 누구나 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C) 그렇구나. 너 정말 시 읽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

→ 시가 지루하고 소설이 좋다고 했으므로 시와 소설을 비교·대조하는 (B)가 오고, 이에 반대 의견을 고집하는 (A)가 온 다음, 그것이 바로 시의 매력이라고 말하는 (D)와 이에 설득되어 시 읽기를 해 보

겠다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03 A: 안녕하세요, 송 선생님. 《우주 침공》을 빌릴 수 있을까요?

B: 안녕, Judy! 확인해 볼게. [타이핑 소리] 오, 유감이지만 그 책은 이미 대출이 되었구나.

A: 안타깝네요. 《화성인의 귀환》은 빌려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세요?

B: 내가 한번 찾아볼게. [타이핑 소리] 오, 빌려갈 수 있네! D 구역에서 찾을 수 있어.

A: 잘됐네요! 감사합니다, 송 선생님.

→ 빈칸 앞에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고 빈칸 뒤에서 빌려갈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① ‘내가 한번 찾아볼게.’가 적절하다.

② 나중에 다시 와서 확인하면 어떠니?

③ 이 프로젝트를 도와줄 수 있니?

④ 유감이지만, 그것도 이미 대출이 되었단다.

⑤ 오, 네 말이 전적으로 맞아! 나도 동의해.

04 → ‘마치 ~인 것처럼’의 의미로 주절과 일치하는 시점의 사실을 반대로 말할 때는 「as if + 가정법 과거(주어 + 동사의 과거형/were)」구문을 사용한다.

05 → ‘얼마나 ~한지’라는 의미는 「how + 형용사(important) + 주어(the role of parents) + 동사(is)」의 어순으로 쓴다.

[06-07] 전화벨이 울렸고, 그것은 나의 고향 와이투이에서 걸려 온 아버지의 전화였다.

“일주일 정도 휴가 낼 수 있겠니?” 그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너를 부르신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대답했다. “제 상사가 더 이상 휴가를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기에 적막이 흐른 뒤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손주야. 와카파파를 끝내려면 무루파라에 가야 해. 운전해서 좀 데려다주렴. 서둘러야 해,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단다.”

06 → ④ 지각동사 heard는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능동 관계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쓴다.

07 Q: Nani는 손자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가?

A: Nani는 와카파파를 끝내기 위해서 손자가 그를 무루파라에 운전해 데려다주기를 바란다.

→ ‘손자가 그를 운전해서 데려다주기를 바란다’의 의미이므로 drive가 알맞고, 와카파파를 끝내기 위함이니 finish가 알맞다.

08 지금 그날은 나에게 꿈처럼 느껴진다. (A) 나는 탁자에 앉아 있던 두 노인과 그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들리던 부드러운 마오리 언어를 기억한다. 조용했던 오후부터 밤까지 내내 그들은 빠진 이름들을 기억해 냈다. (C) 나는 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마치 과거에서 온 사람들이 두 노인의 어깨 너머로 그 작업이 정확한지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들이 멈추었다. (B) 작업이 완성되었다. 잠시의 침묵 후에, 노인이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잘 가시게, 친구.” 그들은 울면서 서로 코를 비비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 꿈처럼 느껴지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A)가 맨 처음에

오고, 작업이 진행 중일 때 보고 느꼈던 것을 묘사하는 (C)가 온 다음, 작업이 끝나고 헤어지는 순간을 회상하는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09-10] 한동안 할아버지는 와카파파라고 알려진 마을의 계보를 쓰느라 바빴다. 와카파파는 그의 옛날 집에 있었다. 그런데 당시 한밤중에 화재가 났고, 화재는 집을 휩쓸며 우리의 과거도 파괴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절망에 빠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딸이자 나의 고모 Hiraina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과거의 잿더미로부터 길을 찾아가면서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와카파파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는 조상들의 이름을 낭송하면서 과거를 현재와 다시 한번 만나게 했다. 마을은 조용히 하고 할아버지의 읊조림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 계보의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며, 수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때때로 기억하기 어려운 행도 있었다. 그러면 그의 목소리가 낭송 중간에 갑자기 멈췄다. 마을 전체가 다음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걱정 어린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할아버지가 와카파파의 대부분을 모으는 데 거의 2년이 걸렸으나 여전히 채워야 할 빠진 이름들이 있었다.

09 → ②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다. 선행사가 the fire이므로 관계대명사 which로 고쳐야 한다.

10 → 화재 후, 할아버지가 고모 집으로 가서 지냈으므로 ②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집에 일어난 화재가 와카파파를 불태웠다.
- ② 화재 후, 나의 고모가 할아버지 댁으로 와서 함께 지냈다.
- ③ Nani Tama는 다시 와카파파를 쓰기 시작했다.
- ④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Nani의 낭송을 들었다.
- ⑤ Nani Tama는 와카파파의 모든 이름을 기억해 낼 수는 없었다.

중간고사 Lesson 1 - Lesson 2

pp. 142-145

01 ③ **02** ⑤ **03** ② **04** make sure to respect other cultures as well as their own **05** ① **06** ③ **07** ⑤ **08** ⑤ **09** ② **10** ④ **11** People were amazed at how skillfully the young girl spoke English. **12** ① **13** ③ **14** 개는 늑대에 비해 친근하고 인간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해서 늑대보다 생존에 유리했다. **15** ③ **16** Homo sapiens **17** ① **18** ③ **19** ⑤ **20** 화재로 절망에 빠졌지만, 와카파파를 작성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21** the two old men **22** ⑤

01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 영영 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③ extinction(멸종)이다.

- ① 장치 ② (생물의) 종 ④ 조상 ⑤ 친구, 동반자

02 그 선수는 단 1점 차로 경기에서 진 후 절망했다.

→ ‘절망에 빠져서’의 의미이므로 ⑤ ‘어떤 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기대도 없이’가 가장 적절하다.

- ①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노력하는
- ② 특별한 규칙을 따르는
- ③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 ④ 과거의 사실, 사건이나 상황을 기억하는

03 •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제가 같게요.”

• 소녀가 엄마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려고 다가왔다.

→ (A) ‘한숨을 쉬며’가 자연스럽게 with a sigh가 적절하다.

(B) ‘속삭이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whisper가 적절하다.

- ① (타고 남은) 재 - 혼동하다 ③ 몸짓 - 모으다
- ④ 노래 - 누르다 ⑤ 감정 - 도와주다

04 → ‘~하도록 해’라는 의미로 당부하는 표현을 나타낼 때는 make sure to를 이용한다.

[05-06] A: Andy,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고민거리가 뭐니?

B: 안녕하세요, 엄마. Brian이랑 그 그룹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A: 오, 이런. 네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니?

B: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개가 제 몫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이틀 안에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하는데 개가 아직 작업을 끝내지 않았어요. 저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

A: 네가 어떤 기분인지 이해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건 어떨까?

B: 우리 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요.

A: 너와 Brian은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잖아. Brian도 네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B: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05 → 엄마가 Andy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라고 조언하고 있고 Brian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 guess I'll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 볼게요.)이다.

②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③ 우리의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해요.

④ 나는 당신들 둘이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⑤ 물론, 그는 이미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06 → We have to hand in our project in two days를 통해서 이틀 안에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07 A: Emma, 뭐 하고 있니?

B: 안녕하세요, 아빠. 학교 웹사이트에서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요.

A: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니?

B: 토론 동아리에 가입할까 생각 중이에요.

A: 좋은 선택인 것 같구나.

B: 네. 새로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A: 그렇구나. 동아리에 어떻게 가입하니? 면접을 봐야 하니?

B: 네, 지원자 전원이 다음 주 금요일에 면접을 볼 거예요. 내일부터는 최근 뉴스 기사를 읽으며 준비할 거예요.

→ 주어진 문장은 그렇다면서 지원자들이 면접을 볼 거라는 내용임으로 면접을 보라는 질문 다음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8 안녕하세요, Lakeview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장 선생님이 Claire White입니다.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드디어 완료되어 3월 14일 월요일에 새 도서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새 도서관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전보다 더 넓고 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공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기를 사용해 가상 회의를 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동영상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스튜디오도 추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권 이상의 신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 마지막 부분에 500권 이상의 책을 구매했다고 했으므로, 공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500권의 신규 도서를 구매할 예정이다.'이다.

09 A: 개인적으로 난 시가 좀 지루해. 가끔은 너무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렵더라.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행간을 파악해야 하잖아.

B: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지만, 그게 바로 시의 매력이야.

A: 그렇구나. 너 정말 시 읽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

B: 사실, 토요일에 동네 서점에서 시 낭송 행사가 있어. 나랑 같이 갈래?

A: 좋아. 시 감상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B가 토요일에 시 낭송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고, A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두 사람은 시 낭송 행사에 갈 것이다.

10 → ④ '내가 길을 잃었던 숲'이라는 의미로, 전치사 in의 목적격 역할을 하면서 사물 선행사 The woods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이므로 which나 that으로 고치거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해야 어법상 옳다.

①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②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는 마치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③ 여행자들은 산악 대피소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몰랐다.

④ 내가 길을 잃었던 숲은 요정들의 집인 것 같았다.

⑤ 버스 안에서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11 → 전치사 at의 목적어로 '얼마나 ~한지'라는 의미의 how가 이끄는 절이 올 때 [how + 형용사/부사 + 주어 + 동사]의 순서로 쓴다.

[12-14] 개의 반응성 행동은 진화 인류학자 Brian Hare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그는 늑대와 비교하여 개가 인간의 몸짓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 늑대는 개와 같은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닥에 두 개의 컵을 놓고 그중 하나에만 음식을 숨겼습니다. 그가 음식이 있는

컵을 가리키자 개들은 쉽게 찾아냈습니다. (A) 하지만 늑대들은 그의 몸짓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무작위로 컵을 골랐습니다. Hare 박사는 인간의 몸짓을 읽는 개의 능력이 개가 늑대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늑대와 달리 개는 인간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밀감이 발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진화 생물학자에 따르면 이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들은 이 두 종의 공통된 조상 중 인간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한 종은 개로 진화했고, 그렇지 않은 종은 늑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B) 게다가, Hare 박사는 개들의 친근한 본성이 아마도 그들에게 늑대들보다 더 많은 개체 수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한 생존의 이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 → (A) 개와 늑대의 행동을 대조하고 있으므로 however가 적절하다. (B)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하므로 Furthermore가 적절하다.

13 → ③ 문장 전체의 동사는 struggled and chose이며, 접속사가 없으므로 pay는 분사구문의 paying이 되어야 한다.

14 → 글의 요지는 실험 결과와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여 '개는 늑대에 비해 친근하고 인간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해서 늑대보다 생존에 유리했다.' 정도의 비슷한 의미가 되도록 한다.

[15-16] 이제 우리 자신 즉, 호모 사피엔스에게 관심을 돌려 봅시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네안데르탈인은 약 4만 년 전까지 호모 사피엔스와 함께 존재했고, 지능이 뛰어나고 호모 사피엔스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도구와 불을 만들 수 있었고, 잘 발달된 근육과 넓은 어깨를 가진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살아남고 번성한 것은 바로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네안데르탈인이 더 작은 집단에서 사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의 조상들은 협력과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을 촉진하는 더 큰 공동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차이는 그들(호모 사피엔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면서,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경쟁력 있는 이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15 → ③ Although는 뒤에 「주어+동사」가 오는 접속사이다. 뒤에 명사구가 왔으므로 같은 의미의 전치사 Despite로 고쳐야 한다.

16 → 대명사 them은 같은 문장의 Homo sapiens를 지칭한다.

17 우리의 경쟁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크거나 가장 강한 사람만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견해를 제안합니다. 친절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안이 되는 생각이지 않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우리의 타고난 친절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는 모두 이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메시지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꽃다발로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꽃이 나머지 꽃들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을 더해주듯이 각각의 사람은 협력할 때 더 아름다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주어진 문장의 연결사 However를 통해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문장에 통념이 언급되고 뒤 문장의 대명사 that이 주어진 문장의 kindness is the key to success를 지칭하는 ①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8-20] 한동안 할아버지는 와카파파라고 알려진 마을의 계보를 쓰느라 바

뻘었다. 와카파파는 그의 옛날 집에 있었다. 그런데 당시 한밤중에 화재가 났고, 화재는 집을 휩쓸며 우리의 과거도 파괴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절망에 빠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딸이자 나의 고모 Hiraina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과거의 잿더미로부터 길을 찾아가면서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와카파파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는 조상들의 이름을 낭송하면서 과거를 현재와 다시 한 번 만나게 했다. 마을은 조용히 하고 할아버지의 읊조림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 계보의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며 수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때때로 기억하기 어려운 행도 있었다. 그러면 그의 목소리가 낭송 중간에 갑자기 멈췄다. 마을 전체가 다음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걱정 어린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할아버지가 와카파파의 대부분을 모으는 데 거의 2년이 걸렸으나 여전히 채워야 할 빠진 이름들이 있었다. 이제 그는 그의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그를 무루파라에 데려다주기를 원했다.

18 → 빠진 이름들을 마저 채우는 것은 와카파파를 완성하는 일을 마무리짓는 것을 의미하므로 빈칸에는 ③ finish가 적절하다.

19 → ⑤ but there were still missing names he needed to fill in을 통해 여전히 채워야 할 빠진 이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 → Nani Tama는 화재로 인해 절망에 빠졌지만, 와카파파를 다시 쓰기 시작하였고, 그 일을 끝마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Nani Tama의 심경을 ‘화재로 절망에 빠졌지만, 와카파파를 작성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21-22] 지금 그날은 나에게 꿈처럼 느껴진다. 나는 탁자에 앉아 있던 두 노인과 그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들리던 부드러운 마오리 언어를 기억한다. 조용했던 오후부터 밤까지 내내 그들은 빠진 이름들을 기억해 냈다. 나는 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마치 과거에서 온 사람들이 두 노인의 어깨 너머로 그 작업이 정확한지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들이 멈추었다. 작업이 완성되었다. 잠시의 침묵 후에, 노인이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잘 가시게, 친구.” 그들은 울면서 서로 코를 비비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가 고모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어두운 이른 아침이었다.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와카파파를 들어 올려 마을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과거를 잊어버렸기(→ 구해 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21 → 밑줄 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the two old men이다.

22 → ⑤ 와카파파를 완성했으므로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과거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forgotten을 saved와 같은 단어로 바꾸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Lesson 3 Free Yourself with Science

Vocabulary Practice

p. 147

A external B ⑤ C ② D ③ E took advantage of

- A** 행복한 : 불행한 = 내부의 : 외부의
→ 반의어 관계이므로, 빈칸에는 external이 적절하다.
- B** •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 시를 해석하면서 상징을 설명했다.
• 통역사는 두 나라 간의 비즈니스 회의에서 대화를 통역했다.
→ ‘해석하다, 통역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interpret가 공통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
- C** 특히 증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하다
→ ‘결정하다’의 의미를 가진 ② determine에 대한 영영 풀이에 해당한다.
- D** → ‘영향을 주다’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③ affect이다.
- E** 우리는 티켓을 사기 위해 할인을 이용했다.
→ make use of는 ‘~을 이용하다’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동사구는 take advantage of이다. 시제가 과거(made)이므로 took으로 쓴다.

Dialogue Practice

p. 151

- A** (1) I wonder why auroras have different colors.
(2) Have you ever heard of how plants make B ②
C I wonder why the sky is blue. D (B) - (D) - (A) - (C)

- A** → (1) ‘나는 왜 ~인지 궁금하다’라는 의미의 궁금증 표현은 「I wonder why + 주어 + 동사」로 할 수 있다.
(2) ‘너는 ~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라는 의미로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을 때는 Have you (ever) heard of ~?로 한다.
- B** A: 나무의 잎들을 좀 봐. 왜 그것이 색깔을 바꾸는지 궁금해.
B: 그것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더 짧아진 낮과 더 서늘해진 기온 때문이야.
→ B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유를 대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어떤 것에 대해 궁금해 하는 ② I wonder why they change color.가 알맞다.
- ① 언제 우리 집 마당에 나무를 심어야 할까?
③ 이 아름다운 나뭇잎들의 사진을 찍자.
④ 이 숲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
⑤ 나는 언제 꽃들이 필지 궁금해.

C → 「I wonder why + 주어 + 동사」로 궁금증을 표현할 수 있다.

D (B) 속삭이는 회랑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

(D) 아니. 꽤 흥미롭게 들리네.

(A) 그것은 세인트 폴 대성당의 돔 아래에 있는 원형의 벽이야. 벽에 대고 속삭이면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들을 수 있어.

(C) 오, 믿을 수 없어. 언젠가 그곳을 방문해 보고 싶구나.

→ 속삭이는 회랑을 알고 있는지 묻는 (B) 다음에 모른다고 답하는 (D)가 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A)가 온 다음, 가 보고 싶다고 응답하는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Grammar Practice

p. 152

A (1) can you learn (2) was (3) did B ④ C can you find D ① E It is easy for children to learn English

A (1) 질문을 해야만 배울 수 있다.

(2) 그들의 책 뒤표지에는 사진이 있었다.

(3) 1800년대가 되어서야 고층 빌딩 건축이 가능해졌다.

→ (1) 부정에 가까운 의미를 나타내는 Only가 문장 앞에 있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야 한다.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 + 주어 + 동사원형」의 어순이 되므로 can you learn이 적절하다.

(2) 도치된 문장의 주어가 a photograph이므로 단수형 was가 알맞다.

(3)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있고 일반동사가 있을 때는 「부정어 + do/does/did + 주어 + 동사원형」의 어순이 되어야 한다.

B → ④ 방향의 부사구가 문두에 있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ran a fire fighter가 되어야 적절하다.

① 그가 중요한 시험에 합격할 줄은 전혀 몰랐다.

②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③ 공원의 벤치 밑에는 잠자는 귀여운 아기 고양이가 있었다.

④ 불타는 집 안으로 한 소방관이 달려 들어갔다.

⑤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만 우리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다.

C → 부정어 Rarely가 문장 앞에 오면 뒤에 도치된 문장의 형태가 온다. 조동사가 있는 경우 「조동사 + 주어 + 동사원형」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can you find로 써야 한다.

D 우리는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 우리는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

→ 가주어 - 진주어 구문을 이용하여 It is possible for us로 we can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E → 가주어 It을 사용하고 의미상 주어를 「for + 목적격」, 진주어를 「to + 동사원형」으로 나타낸다.

Reading Practice

pp. 156-157

A ④ B ⑤ C (a) 마루에 있는 파동과 골에 있는 파동 (b) 음파 D ② E ⑤ F is → are

A 공부하기 더 좋은 환경은 시끄러운 곳과 조용한 곳 중 어디일까? 심한 소음은 불쾌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때문에 심한 소음을 참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발명했고, 그것은 원하지 않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현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 성취의 이면에 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소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보자.

→ ④ 관계대명사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noise-cancelling technology이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사용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used가 되어야 한다.

[B-C] 소리는, 예를 들어 기타 줄이 연주될 때 같이 음원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통해 생성된다. (C) 돌을 던졌을 때 호수에 발생하는 잔물결처럼 음원의 진동으로 공기가 진동하고 소리가 파도처럼 이동한다. 이 음파가 우리 귀에 도달하면 뇌는 (b) 그것들을 소리로 해석한다. (B) 물에 두 개의 돌을 던지면 서로 다른 물결이 겹쳐질 수 있는 것처럼, 음파도 만나면 서로 간섭할 수 있다. 간섭에는 두 가지 종류, 즉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있다. (A) 보강 간섭은 두 파동의 마루가 겹쳐질 때 일어나 파동이 더 커지고 소리가 더 커진다. 반면에, 상쇄 간섭은 한 파동의 마루가 다른 파동의 골과 겹쳐질 때 일어나 (a) 그것들은 서로 상쇄되어 더 작은 소리가 나거나 전혀 소리가 나지 않게 된다.

B → 주어진 문장은 소리의 생성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그것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음파가 뇌에 전달되는 과정을 언급하는 (C)가 오고, 두 가지의 간섭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술을 하는 (B)가 온 뒤, 두 가지 간섭 현상인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A)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C → (a)의 they는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마루에 있는 파동과 골에 있는 파동을 가리키며, (b)의 them은 앞 부분의 these sound waves인 음파를 가리킨다.

[D-F] 상쇄 간섭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이용된다. 헤드폰 안에는 마이크와 소음 제거 회로가 있다. 마이크는 외부의 소리를 수집하고 회로는 이를 분석하여 반대 음파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외부 소음이 +1의 값을 가지면 회로는 -1의 반대 소음을 생성하여 스피커로 전송한다. 이것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원하지 않는 소리를 상쇄하여 소리를 키우지 않고도 음악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A) 그러나 이 기술로 외부 소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완전한 소음 제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마이크에 도달하자마자 회로가 소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스피커로 즉시 반대 소리를 전송해야 한다. (B) 따라서 이 소음 차단 기술은 자동차 엔진 소리, 지하철 소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소리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같은 일관성 있는(→ 일관성 없는) 소리에는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이다.

D → (A) 앞 문장에서는 소음 제거의 원리를 설명하고, 뒤 문장에서는 ‘완전히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기술의 난제에 대

해 언급하므로 역접의 의미를 가진 However가 적절하다.

(B) 앞 문장에서는 완벽한 소음 제거를 위한 기술적 조건을 제시하고, 뒤에서는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기술이 효과적일 때와 효과적이지 않을 때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 관계를 연결하는 Therefore가 적절하다.

E → ⑤ such as those of people talking close to you는 규칙적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소리와 대조되는 소리이므로 consistent(일관성 있는)를 inconsistent(일관성 없는)로 고쳐야 적절하다.

F → 장소의 부사구(Inside the headphones)가 문장의 앞에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이다. 주어가 복수 형태인 microphones and noise-cancelling circuitry이므로 동사는 are가 되어야 한다.

단원평가 1회

pp. 158-159

- 01 ① 02 ④ 03 ④ 04 Have you ever heard of
05 ④ lead → to lead 06 ⑤ 07 ⑤ 08 ③ 09 외부 소음이 +1의 값을 가지면 -1의 반대 소음을 생성하여 스피커로 전송하는 것
10 ⑤ 11 without being disturbed by distracting noises
12 관광지 매표소의 마이크와 스피커에 적용되어 매표 직원이 고객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 수 있다. / 드라이브스루 패스트푸드 식당과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헤드셋에 적용되어 직원이 주문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에 적용되어 운전자가 운전 중 집중할 수 있다.

01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고 장비를 통해 통과시키다
→ ‘거르다’라는 의미의 ① filter에 대한 영영 풀이에 해당한다.
② 숨을 쉬다 ③ 발명하다 ④ 영감을 주다 ⑤ 저항하다

02 A: 친구 몇 명과 카페 Grande에 갔다가 꽤 멋진 걸 봤어.
B: 그래? 뭐였어?
A: 음, 내 음료에 큰 아이스 볼이 들어 있었어. 사람들이 왜 그런 모양의 얼음을 쓰는지 궁금해.
B: 좋은 질문이야. 그 모양이 다른 모양보다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음료를 더 오래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 빈칸의 다음 문장에서 “좋은 질문이야.”라고 시작하면서 과학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사람들이 왜 그런 모양의 얼음을 쓰는지 궁금해.’이다.
① 왜 그 카페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지 궁금해.
② 내 음료를 더 큰 사이즈로 줄 수 있니?
③ 포장 주문을 고려해 보는 건 어때?
⑤ 이 아이스 볼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는지 궁금해.

03 우리는 테마파크에 가는 것을 생각할 때, 롤러코스터를 탈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짜릿한 상승과 하강을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계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롤러코스터에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움직임은 롤러코스터가 올라가는 첫 언덕 꼭대기에서 얻는 위치에너지에만 의존한다. 롤러코스터가 중력 때문에 언덕을 내려갈 때, 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

→ ④ Since가 이끄는 절은 부사절이고, 문장 전체의 주어는 their movement인데 동사가 없다. 따라서 relying을 relies로 고쳐야 한다.

04 → ‘-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지 묻는 표현은 Have you ever heard of ~?이다.

05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소음 공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소음 제거 기술은 원하지 않는 폐해를 줄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더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준다.

→ ④ 동사 allow는 ‘allow + 목적어 + to부정사’ 형태로 써서 ‘목적어가 ~할 수 있게 해 주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06 공부하기 더 좋은 환경은 시끄러운 곳과 조용한 곳 중 어디일까? 심한 소음은 불쾌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때문에 심한 소음을 (A) 참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발명했고, 그것은 원하지 않는 소음을 (B) 줄이기 위해 현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 성취의 이면에 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소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보자.

→ (A) 많은 소음을 ‘참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참다,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의 put up with가 적절하다.

(B) 소음 제거 기술의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원하지 않는 소음을 ‘줄이다’가 되도록 reduce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09] 상쇄 간섭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이용된다. 헤드폰 안에는 마이크와 소음 제거 회로가 있다. 마이크는 외부의 소리를 수집하고 회로는 이를 분석하여 반대 음파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외부 소음이 +1의 값을 가지면 회로는 -1의 반대 소음을 생성하여 스피커로 전송한다. 이것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원하지 않는 소리를 상쇄하여 소리를 키우지 않고도 음악 소리를 분명하게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술로 외부 소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완전한 소음 제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마이크에 도달하자마자 회로가 소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스피커로 즉시 반대 소리를 전송해야 한다. 따라서 이 소음 차단 기술은 자동차 엔진 소리, 지하철 소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소리에 효과적이다.

07 → 소음 제거 기술의 과학적 원리를 헤드폰의 구조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외부 소음을 어떻게 없애는가’이다.

- ① 헤드폰의 역사: 듣기 여행
② 노이즈 캔슬링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
③ 기술로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다

④ 음악 감상의 핵심: 소리 자체에 집중하기

08 → 주어진 문장은 역접의 연결사 However 뒤에 외부 소음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진술이 나오므로, 앞에는 ‘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고, 뒤에는 완벽한 소음 제거 방법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9 → This는 앞 문장의 내용을 받아, +1의 값을 가지는 외부 소음에 -1의 반대 소음을 생성하여 스피커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10-12]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음악 기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개 매우 시끄러운 관광지의 매표소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이 기술을 이용한다. 매표소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외부 소음을 감지하고, 반대 음파를 생성하여 스피커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매표 직원이 고객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해 준다. 이 기술이 사용되는 또 다른 분야는 드라이브스루 패스트푸드 식당과 커피숍이다. 그들은 차량 소음을 제거함으로써 직원과 고객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사용한다.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은 드라이브스루 직원이 주문을 정확하게 받는 데 도움이 된다. 같은 기술은 자동차에도 사용되는데,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이 엔진, 바람, 도로 소음과 같은 기분 좋은(→ 불쾌한) 소음을 상쇄하기 위해 파동을 발생시킨다. 노이즈 캔슬링 장치 덕분에 운전자가 산만한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운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다.

10 → ⑤ 엔진, 바람, 도로 소음과 같은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 파동을 생성한다는 내용인데 엔진, 바람, 도로 소음을 기분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색하다. pleasant(기분 좋은, 즐거운)을 unpleasant(불쾌한)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적절하다.

11 → 동사 disturb는 ‘방해받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도록 수동태 be disturbed로 표현하는데, 전치사 without 뒤에는 동명사가 오므로 being disturbed로 쓴다. 동사 distract는 ‘산만하게 하는 소음’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현재분사형의 형용사 distracting으로 쓴다.

12 → 글에는 관광지 매표소의 마이크와 스피커, 드라이브스루 패스트푸드 식당과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헤드셋,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의 적용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각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enabling the ticket agent to hear ~ / These noise-cancelling headsets help drive-through employees ~ / it is possible for drivers to focus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원평가 2회

pp. 160-161

01 ⑤ 02 ⑤ 03 ④ 04 ① 05 It is necessary for teenagers to learn 06 ③ 07 ④ 08 ② 09 overlapping → overlaps 10 ④ 11 ③

01 • 두 음파의 마루가 겹쳐질 때 보강 간섭이 발생한다.

• 우리는 아이디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다.

→ ‘보강의, 건설적인’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 constructive가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① 즉각적인 ② 일관된 ③ 매력적인 ④ 상쇄의

02 A: 안녕하세요, Smith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B: 물론이지. 무엇이 궁금하니?

A: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왜 코에 구멍이 두 개 있는지 궁금해요.

B: 전혀 우습지 않아. 우리 코에 있는 이 두 개의 구멍은 사실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단다.

A: 그런데 왜 구멍이 두 개나 필요하죠? 코 가운데에 큰 구멍이 하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B: 흥미로운 생각이구나! 두 개의 구멍은 공기를 여과하고 뇌로 냄새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번갈아가며 활동한다.

→ 빈칸 뒤에 나오는 Those two openings in our noses를 통해 빈칸의 내용이 두 개의 콧구멍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I wonder why we have two holes in our noses(왜 코에 구멍이 두 개 있는지 궁금해요)이다.

① 우리가 항상 숨을 쉬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② 코가 입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③ 저는 사람들이 교대로 말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어요

④ 이 필터가 어떻게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지 궁금해요

03 A: Lian, Frances Gabe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니?

(C) 아니, 누구야?

(B) 그녀는 자동 청소 주택을 발명했어.

(D)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런데 단순히 모형 집이었니, 아니면 실제로 집에 살았니?

(A) 그것은 진짜였어! 그녀는 실제로 그곳에 살았어.

→ Frances Gabe에 대해서 들어 봤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C)가 오고, 부연 설명을 하는 (B)가 이어진 다음, 추가 질문을 하는 (D)와 이에 답하는 (A)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04 → ① 장소의 부사구(In the heart of the city)로 시작하는 도치 문장이다. 문장의 주어(a beautiful park)가 단수이므로,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 lies로 써야 한다.

① 도시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

② 우리 학교의 나무 아래에는 토끼 한 무리가 있었다.

③ 언덕 꼭대기에는 두 남성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④ 그는 자신이 지도자로 선출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⑤ 운동회 날 동안에만 우리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05 → it과 necessary가 주어졌으므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여 「It is necessary for + 목적격 + to부정사」의 어순으로 쓴다.

06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음악 기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개 매우 시끄러운 관광지의 매표소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이 기술을 이용한다.

(B) 매표소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외부 소음을 감지하고, 반대 음파를 생성하여 스피커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매표 직원이 고객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해 준다. (C) 이 기술이 사용되는 또 다른 분야는 드라이브스루 패스트푸드 식당과 커피숍이다. (A) 그들은 차량 소음을 제거함으로써 직원과 고객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사용한다.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은 드라이브스루 직원이 주문을 정확하게 받는 데 도움이 된다.

→ 주어진 글 마지막 부분에서 매표소에서 사용되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므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B)가 이어지고, 또 다른 사례를 언급하는 (C)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A)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07-09] 소리는 예를 들어, 기타 줄이 연주될 때 같이 음원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통해 생성된다. 돌을 던졌을 때 호수에 발생하는 잔물결처럼 음원의 진동으로 공기가 진동하고 소리가 파도처럼 이동한다. 이 음파가 우리 귀에 도달하면 뇌는 이를 소리로 해석한다. 물에 두 개의 돌을 던지면 서로 다른 물결이 겹쳐질 수 있는 것처럼, 음파도 만나면 서로 간섭할 수 있다. 간섭에는 두 가지 종류, 즉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있다. 보강 간섭은 두 파동의 마루가 겹쳐질 때 일어나 파동이 더 커지고 소리가 더 커진다. 반면에, 상쇄 간섭은 한 파동의 마루가 다른 파동의 골과 겹쳐질 때 일어나 서로 상쇄되어 더 작은 소리가 나거나 전혀 소리가 나지 않게 된다.

07 → Constructive interference occurs when the peaks of two waves overlap, resulting in a bigger wave and a louder sound. 여기서 두 파동의 마루가 겹쳐지면 더 큰 소리가 난다고 했으므로 ④가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다.

08 → 소리의 생성과 이동, 두 가지 간섭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음파와 간섭의 과학적 원리’이다.

- ① 거리와 소리 진동의 관계
- ③ 음악 감상에 있어서 다양한 음향 효과의 장점
- ④ 청각 경험에서 마루와 골의 원리
- ⑤ 우리 뇌와 연결된 소리의 연쇄 반응

09 → ‘~할 때’라는 의미의 접속사 when은 부사절을 이끌어 주어와 동사가 와야 한다. 주어는 a peak of one wave이고 동사가 없으므로 overlapping을 overlaps로 써야 한다.

[10-11] 상쇄 간섭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이용된다. 헤드폰 안에는 마이크와 소음 제거 회로가 있다. 마이크는 외부의 소리를 수집하고 회로는 이를 분석하여 반대 음파를 생성한다. 이것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원하지 않는 소리를 상쇄하여 소리를 키우지 않고도 음악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술로 외부 소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완전한 소음 제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마이크에 도달하자마자 회로가 소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스피커로 즉시 반대 소리를 전송해야 한다. 따라서 이 소음 차단 기술은 자동차 엔진 소리, 지하철 소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소리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같은 일관성 없는 소리에는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이다.

10 → ④ must convert와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이므로, 동사원형

transmit로 고쳐야 한다.

11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반대 음파를 만들기 위해 (A) 상쇄 간섭을 영리하게 사용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소리와 지연으로 인해 그 효과가 (B) 완벽하지 않다.

→ (A)에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소리를 상쇄하는 것이므로 ‘상쇄의’라는 의미의 단어 destructive가 적절하며, (B)에는 그 효과가 완벽하지 않은 소음도 있다고 했으므로 ‘완벽한’의 의미를 가진 perfect가 적절하다.

- ① 외부의 - 증명된 ② 상쇄의 - 결점이 있는
- ④ 보강의 - 이상적인 ⑤ 보강의 - 불완전한

Lesson 4 Let It Be Green

Vocabulary Practice

p. 163

A distribution B ③ C ② D ① E take into account

A 흥분시키다 : 흥분 = 분포시키다 : 분포

→ 동사와 명사의 관계이므로 빈칸에는 동사 distribute의 명사형 distribution이 와야 한다.

B 나무가 탈 때, 이산화 탄소를 방출한다.

→ 의미상 ‘방출하다’의 의미인 ③ release가 적절하다.

- ① 위협 ② 협력하다 ④ 불순물 ⑤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C 어떤 것을 버리다; 어떤 것을 제거하다

→ ‘~을 처리하다’의 의미를 가진 ② dispose of에 대한 영영 풀이이다.

- ① 흡수하다 ③ 보존하다 ④ 인식하다 ⑤ 발생시키다

D → ‘멸종 위기에 처한’의 뜻으로 쓰이는 ① endangered가 알맞다.

- ② 재생 가능한 ③ 상당한 ④ 어마어마한, 방대한 ⑤ 광범위한, 널리 퍼진

E 목표를 세울 때 너의 현재 능력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 consider는 ‘~을 고려하다’의 뜻으로 쓰였으며 take into account로 바꿔 쓸 수 있다.

Dialogue Practice

p. 167

A am worried about **B** ② **C** am really concerned about **D** (A) - (B) - (D) - (C)

- A** → ‘난 -이 걱정돼’는 I am worried about이다.
- B** A: 나는 매일 아침 너무 피곤해.
B: 학교 오기 전에 아침밥을 먹는 것이 어때?
→ ‘-하는 게 어때?’라는 뜻으로 제안할 때는 Why don't you ~? 또는 How about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C** A: 나는 Sarah가 정말 걱정돼. 이틀이나 됐는데, 아직도 학교에 안 나왔어.
B: 나도 막 Sarah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 Sarah에게 전화해서 괜찮은 지 알아보자.
→ ‘-이 걱정되다’의 의미인 be concerned about을 써서 걱정하는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 D** (A) Clara,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에 대해 너랑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B) 나도!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일은 항상 흥미로운 일이야.
(D) 있잖아. 우리 독서 모임을 시작하는 게 어때?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가장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 토의하는 거야.
(C) 정말 좋은 생각이다! Sam도 분명히 함께하는 데 관심 있을 거야. 그도 책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
→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A)가 오고, ‘나도!’라고 동의하는 (B)가 온 다음, 독서 모임을 제안하는 (D)와 제안에 좋다고 답하는 (C)로 마무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Grammar Practice

p. 168

- A** (1) blowing (2) held (3) running
B (1) riding (2) (to) keep (3) leaves
C with the radio turned on
D (1) The company provides not only excellent customer service but also high-quality products.
(2) I prefer is not chocolate ice cream but vanilla ice cream
(3) Neither the blue shirt nor the green one matches my pants.

- A** (1)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그들은 해변가에 서 있었다.
(2) Sean은 티켓을 그의 손에 꼭 쥐 채로 극장에 들어왔다.
(3) 그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채로 그녀를 슬프게 쳐다보았다.

→ (1) 「with + 명사 + 분사」 형태의 분사구문에서 명사 the wind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blowing이 적절하다.

(2) 「with + 명사 + 분사」 형태의 분사구문에서 명사 a ticket과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held가 적절하다.

(3) 「with + 명사 + 분사」 형태의 분사구문에서 명사 tears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running이 적절하다.

- B** (1) 농구와 스케이트보드 타기는 둘 다 Jean이 즐기는 야외 활동이다.
(2)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보기로 결정했다.
(3) 여행은 기분 전환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긴다.
→ (1) 「both A and B」의 A에 동명사구 playing -이 있으므로 형태가 같도록 riding으로 쓴다.
(2) 「not A but B」의 A에 to부정사 to give가 있으므로 형태가 같도록 to keep으로 쓴다. to는 중복되므로 생략할 수 있다.
(3) 「not only A but also B」의 A에 3인칭 단수동사 현재형 refreshes가 있으므로 형태가 같도록 leaves로 쓴다.

C → ‘-이 ...한 채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with + (대)명사 + 분사」 구문을 사용하며,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로 쓴다.

- D** (1) 그 회사는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회사는 질 좋은 제품도 제공한다.
(2) 내가 선호하는 것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아니다.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선호한다.
(3) 파란색 셔츠가 내 바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초록색 셔츠도 어울리지 않는다.
→ (1)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로 「not only A but also B」가 쓰이며 이때 A와 B는 문법적인 형태가 같아야 한다.
(2) ‘A가 아니고 B’라는 의미로 「not A but B」가 쓰이며 A와 B는 chocolate ice cream과 vanilla ice cream이다.
(3) ‘A도 아니고 B도 아닌’이라는 의미로 「neither A nor B」가 쓰이며 A와 B는 the blue shirt와 the green one이다. 주어로 쓰이면 동사를 B에 수 일치시킨다.

Reading Practice

pp. 172-173

A ③ **B** ④ **C** ② **D** ② **E** The resulting SCGs **F** ①

- A** 전 세계의 폭넓은 커피에 대한 사랑은 큰 환경적 대가가 따르는데, 커피 추출 과정이 상당한 쓰레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원두의 0.2퍼센트만이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 99.8퍼센트는 쓰레기로 처리된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커피는 매년 수백만 톤의 커피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 원두의 99.8퍼센트가 쓰레기로 처리되므로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커피는 매년 수백만 톤의 커피 쓰레기를 발생시킨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As a result(그 결과)가 적절하다.

- B**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커피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커피박의 새로운 용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커피박과 같은 재료를 재활용함으로써, 개인들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커피박의 재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커피 소비 방법을 촉진할 것이다.
- ④ 주어의 핵이 the recycling이므로 단수동사는 is가 알맞다.

C 유명한 독일 음악가 Johann Sebastian Bach가 언젠가 '모닝커피가 없다면, 나는 그저 말라비틀어진 염소 고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이러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커피숍이 거리마다 생겨나고 있고, 도시인들이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국제 커피 기구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대략 100억 톤의 커피가 소비되었고 한국인들은 150,780톤의 커피를 소비하며 이 거대한 총량에 큰 기여를 했다. 이는 한국 성인 한 명당 일 년 내내 하루 평균 한 잔의 커피를 마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한국인과 다른 전 세계인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다.

→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내용으로 ②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다'가 적절하다.

- ① 커피 산업은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최근 커피 소비량의 감소는 주목할 만하다
- ④ 커피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주된 원인이다
- ⑤ 플라스틱 커피 컵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D 그럼, 커피 추출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 커피박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진다. 그곳에서 커피박은 분해되면서 이산화 탄소보다 약 25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테인을 방출한다. 일부 커피박은 매립되는 대신 소각되지만, 이는 1톤당 338kg이 나 되는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방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쓰레기 관리 선택지 중 어느 것도 커피박의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커피박이 가치 있는 유기 화합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그저 소실된다.

→ 주어진 문장의 There는 ② 앞의 landfills를 가리키며, 주어진 문장에서 커피박이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되어 발생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②가 적절하다.

[E-F] 실행되고 있는 순환 경제의 예시는 한 커피숍 체인이 커피숍에서 나오는 커피박을 수거하기 위해 한 단체와 협력할 때 발생한다. 이 커피박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건조된다. 그 결과로 얻은 커피박은 비료 회사에 판매되고, 그곳에서 그것들은 유기농 비료로 변환된다. 이 비료는 후에 커피숍 체인에 다시 판매된다. 체인은 비료를 지역의 친환경 농부들에게 제공하고, 농부들은 그들의 생산물을 다시 체인에 판매한다. 농산물은 라이스칩과 말린 고구마 등 다양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식품들은 체인 커피숍에서 판

매된다. 이런 식으로 커피박을 다른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사업체들과 지역 농부들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E → 불순물이 제거된 후, 건조된 커피박은 비료 회사에 팔리고, 그곳에서 그것들은 유기농 비료로 바뀐다는 내용이므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주절의 주어 The resulting SCGs이다.

F → 이 글은 순환 경제가 커피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 ① '커피 산업에서의 순환 경제'가 가장 적절하다.

- ② 농사에서 신선한 비료의 중요성
- ③ 지역 농산품을 사용하는 것의 경제적 이익
- ④ 커피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⑤ 집에서 커피박으로 농산물을 기르는 방법

단원평가 1회

pp. 174-175

01 ④ 02 ② 03 ③ 04 am worried about 05 He went to the beach not in the evening but in the morning.
06 ① 07 커피박을 (매립하는 것 대신에) 소각하는 것 08 ④
09 ① 10 necessity 11 ④ 12 @ collaboration ⑩ environmental

01 • 의사들과 연구원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종종 협력한다.
• 팀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두 문장의 의미상 '협력하다'라는 의미의 ④ collaborate가 적절하다.

- ① 유지하다 ② 싸우다 ③ 이해하다 ⑤ 보존하다

02 그는 열심히 일해서 프로젝트의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 '상당한'의 의미와 비슷한 단어는 '상당한, 커다란'의 의미를 가진 ② significant이다.

- ① 가치 없는 ③ 멸종 위기에 처한 ④ 광범위한 ⑤ 보통의, 일상적인

03 A: 아빠, 뭐 하세요? 양말에 난 구멍을 바느질하는 중이세요?

B: 좋은 아침이야, Amy. 사실 네 여동생에게 줄 인형을 만드는 중이란다.

구멍이 났거나 유행이 지난 양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

A: 멋져요. 버려질 뻔한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네요.

B: 그렇지. 아빠랑 함께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때?

A: 정말요? 너무 좋아요! 뭐가 필요하죠?

B: 그냥 낡은 양말 몇 개 가져오렴.

A: 좋아요. 지금 가지고 올게요.

→ 빈칸 뒤에 Amy가 제안을 수락하고 아빠와 함께 인형 만들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는 표현인 ③ Why don't you make one with me?가 알맞다.

- ① 정말 아름다운 인형이구나!
- ② 우리가 인형이 없다면 무엇을 하겠니?
- ④ 너 인형을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 ⑤ 왜 여동생을 위해 인형을 만들어야겠니?

04 → ‘-이 걱정되다’는 be worried about이고, 주어가 I이므로 be동사는 am으로 쓴다.

05 그는 아침에 해변에 갔다. 그는 저녁에 해변에 가지 않았다.
→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의 의미로 A와 B에는 문법적으로 같은 형태가 옳으므로 A와 B에 in the evening과 in the morning을 쓴다.

- 06** → ① ‘Sarah는 TV가 켜진 채로 잠이 들었다.’는 의미로 the TV와 뒤의 분사가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turned가 적절하다.
- ② 그는 문을 닫은 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 ③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무대 위에 섰다.
 - ④ Anna는 팔을 높이 든 채로 불리기를 기다렸다.
 - 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가운데 나는 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07-08] 그럼, 커피 추출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 커피박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진다. 그곳에서 커피박은 분해되면서 이산화 탄소보다 약 25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테인을 방출한다. 일부 커피박은 매립되는 대신 소각되지만, 이는 1톤당 338kg이나 되는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방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쓰레기 관리 선택지 중 어느 것도 커피박의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커피박이 가치 있는 유기 화합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그저 소실된다.

07 → this는 but 앞의 내용인 ‘커피박이 (매립되는 대신에) 소각되는 것’을 가리킨다.

08 → 커피 추출 과정에서 생기는 커피박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지에 묻히거나 소각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④ ‘커피박의 처리’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 ① 커피박의 긍정적인 효과
- ② 커피박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 ③ 오존층에 해로운 기체들
- ⑤ 재활용 노력들: 당신의 가정에서 지원하라

[09-10] 유명한 독일 음악가 Johann Sebastian Bach가 언젠가 ‘모닝커피가 없다면, 나는 그저 말라비틀어진 염소 고기와 다름 바 없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이러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커피숍이 거리마다 생겨나고 있고, 도시인들이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국제 커피 기구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대략 100억 톤의 커피가 소비되었고 한국인들은 150,780톤의 커피를 소비하며 이 거대한 총량에 큰 기여를 했다. 이는 한국 성인 한 명당 일 년 내내 하루 평균 한 잔의 커피를 마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한국인과 다른 전 세계인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다.

- 09** → (A) 문맥상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공감된다’는 의미이므로 shared가 적절하다.
- (B) 뒤에 있는 명사 contribution을 꾸며 주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상당한’이라는 의미의 significant가 적절하다.

(C) 동사 mean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10 가져야 하는 어떤 것; 필요한 어떤 것

→ 영영 풀이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necessity(필수품)이다.

[11-12] 실행되고 있는 순환 경제의 예시는 한 커피숍 체인이 커피숍에서 나오는 커피박을 수거하기 위해 한 단체와 협력할 때 발생한다. (C) 이 커피박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건조된다. 그 결과로 얻은 커피박은 비료 회사에 판매되어 유기농 비료로 변환된다. (A) 이 비료는 후에 커피숍 체인에 다시 판매된다. 체인은 비료를 지역의 친환경 농부들에게 제공하고, 농부들은 그들의 생산물을 다시 체인에 판매한다. 농산물은 라이스칩과 말린 고구마 등 다양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식품들은 체인 커피숍에서 판매된다. (B) 이런 식으로 커피박을 다른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사업체들과 지역 농부들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11 → 주어진 글에서 한 단체가 커피숍에서 커피박을 수거한다고 했으므로 수거된 커피박에 대한 내용이 (C)의 These grounds로 이어지고, (C)의 마지막에 커피박이 유기농 비료가 된다는 내용은 (A)의 This fertilizer로 이어지며, 앞에서 언급된 방식으로(in this manner) 커피박을 다른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설명하는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12 순환 경제의 사례는 기관들의 ④ 협력으로 발생하며, 그것이 관련 사업체들과 지역 농부들에게 경제적, ⑥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 ④에는 커피숍 체인, 커피박 수거 단체, 비료 회사 등 여러 기관들의 ‘협력(collaboration)’이 알맞고, ⑥에는 can benefit both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를 근거로 ‘환경적(environmental)’이 알맞다.

단원평가 2회

pp. 176-177

01 ③ **02** ① **03** ② **04** ③ **05** ④ helped **06** come
06 ①, ④ **07** (A) is (B) consumed **08** with the extraction process generating significant waste **09** not only have a visually appealing appearance but also preserve the taste of the coffee **10** ③ **11** ② **12** ⑤

01 인터넷은 생각과 의견의 광범위한 공유를 가능하게 했다.

→ ‘광범위한, 널리 퍼진’의 반대 의미는 ③ limited(제한된)이다.

- ① 널리 퍼져 있는
- ② 비싼
- ④ 꾸준한
- ⑤ 적절한

02 → ① necessary(필요한)와 necessity(필요; 필수품)만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와 명사’의 관계이다.

- ② 발생시키다: 발생 ③ 분류하다: 분류
④ 소비하다: 소비(량) ⑤ 분배하다: 분배

03 A: Kate,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 좀 걱정 있어 보여.

B: 해수면 그래프를 보고 있어. 여기, 한번 봐.

A: 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상승과 하락이 좀 있지만.

B: 맞아, 해수면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어. 나는 특히 남태평양의 투발루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야.

A: 무슨 말이야?

B: 그게, 만약 해수면이 계속 상승한다면, 100년 안에 그들의 땅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

A: 어머, 정말? 만약 그들 땅이 사라지면, 그들은 집뿐만 아니라 문화와 전통도 잃게 되겠네.

B: 정확해. 해수면 상승이 대부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해수면 그래프를 보고 남태평양의 투발루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주제로 ②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적절하다.

- ① 문화와 전통의 가치
③ 오염에 기여하는 인간 활동들
④ 투발루 사람들에게 바다의 중요성
⑤ 투발루의 발전을 보여 주는 그래프

04 A: 세계 꿀벌의 날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

B: 세계 꿀벌의 날? 아니, 들어 보지 못했어. 그게 뭔데?

A: 매년 5월 20일에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야. 유엔은 우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꿀벌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알리기 위해 이 날을 만들었어.

B: 오, 그런 날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 하지만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어디에선가 읽었어.

A: 안타깝게도, 그건 사실이야.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 꿀벌 개체 수가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특히 세계 식량 생산량의 약 3분의 1이 꿀벌에 의존하기 때문이지.

B: 오, 이런! 만약 꿀벌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걱정이네.

A: 나도, 그래. 세계 꿀벌의 날 덕분에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좋겠어.

→ 우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앞에 있으므로 ‘줄어들고 있는’ 꿀벌 개체 수가 심각한 문제라는 내용이 적절하다. 따라서 ③ increasing(증가하는)을 decreasing(감소하는) 등으로 고쳐야 한다.

05 • 그녀는 숙제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의 숙제도 도왔다.

• 너는 집에 머무르거나 우리와 함께 콘서트에 갈 수 있다.

→ 상관접속사(not only A but also B, either A or B)에 의해 연결되는 어구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여야 하므로 ㉠ 앞의 동사 finished(과거형)와, ㉡ 앞의 동사 stay(동사원형)와 같은 문법적 형태로 고친다.

06 → ① ‘Jessie는 불이 켜진 채로 잠들 수 없었다.’는 의미로 명사 the

light와 분사가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turned는 적절하다. ④ ‘미라는 라디오가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요리를 했다.’는 의미로 명사 the radio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분사 playing은 적절하다.

② 시간이 다 되어 가면서 나는 초조해졌다. (→ running)

③ 그는 손을 떨면서 메모를 읽었다. (→ shaking)

⑤ 그들은 손을 흔들며 우리를 환영했다. (→ waving)

[07-08] 전 세계의 폭넓은 커피에 대한 사랑은 큰 환경적 대가가 따르는데, 커피 추출 과정이 상당한 쓰레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원두의 0.2퍼센트만이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 99.8퍼센트는 쓰레기로 처리된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커피는 매년 수백만 톤의 커피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07 → (A) 「부분 표현 + of + 단수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가 적절하다.

(B) 전 세계적으로 ‘소비된’ 커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consumed가 적절하다.

08 커피 추출 과정이 상당한 쓰레기를 발생시키면서 환경 문제가 커피 소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다.

→ ‘-이 ...하면서’라는 의미의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쓴다.

[09-10] 재활용된 커피박은 커피 잔작, 의류와 신발을 위한 직물, 재사용 가능한 컵을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커피 잔작은 나무보다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더 오랜 시간 탄다. 커피박으로 만든 직물은 땀을 흡수하고, 빠르게 마르고,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 커피박으로 만든 재사용 가능한 컵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커피의 풍미도 간직하고 있다.

09 →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의 상관접속사 「not only A but also B」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A와 B는 문법적으로 같은 형태여야 한다.

10 → 재활용된 커피박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

③ ‘재활용된 커피박의 다양한 활용’이 가장 적절하다.

① 커피숍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들

② 재활용품 시장에서의 경쟁

④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협력

⑤ 일회용품 재활용의 중요성

[11-12]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커피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커피박의 새로운 용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커피박과 같은 재료를 재활용함으로써, 개인들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커피박의 재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커피 소비 방법을 촉진할 것이다.

11 → 글의 흐름상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우므로 ② efforts가 적절하다.

12 → ⑤ 커피 소비량이 아니라 커피박의 재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기말고사 Lesson 3 - Lesson 4 pp. 178-181

01 (1) unpleasant (2) interference 02 ① 03 ③ 04 ③
05 ⑤ 06 Why don't you make one with me? 07 ④
08 for 09 ① 10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발명한 과학적 원리
11 ② 12 these sound waves 13 ⑤ 14 ⑤ 15 ④ 16 ⑤
17 ③ 18 ① 19 ① 20 ③ 21 ⑤ 22 Increasing, Interest, Recycling

- 01 (1) 간섭적인 : 파괴적인 = 즐거운 : 불쾌한
(2) 진동하다 : 진동 = 간섭하다 : 간섭
→ (1)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반대말이므로 반대를 나타내는 접두어 un-을 붙여 만든 unpleasant가 알맞다.
(2) '동사와 명사'의 관계이므로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ence를 붙여 만든 interference가 알맞다.
- 02 정부는 순환 경제 대책을 통해 커피 산업의 환경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 '대책'이라는 의미이므로 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가 알맞다.
② 측정에 사용되는 도구
③ 길이, 무게, 부피의 단위
④ 분석을 위해 수집된 양적 데이터
⑤ 음악 공연용 악기들
- 03 A: 어제 뭐 재미있는 일 있었니?
B: 응, 친구 몇 명과 카페 Grande에 갔다가 꽤 멋진 걸 봤어.
A: 그래? 저번에 갔을 때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
B: 음, 내 음료에 큰 아이스 볼이 들어 있었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구모 양의 얼음을 쓰는지 궁금해.
A: 좋은 질문이야. 그 모양이 다른 모양보다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음료를 더 오래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B: 생각해 보니 내 음료의 얼음이 일반 정육면체 얼음보다 훨씬 더 느리게 녹았어.
A: 구는 주어진 부피에 대해 가장 작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 주어진 말은 궁금증을 표현하는 말로 의문 또는 질문에 해당하므로 '좋은 질문이야.'라는 대답 앞에 들어가야 알맞다.

[04-05] B: 안녕하세요, Smith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W: 물론이지. 무엇이 궁금하니?

B: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왜 코에 구멍이 두 개 있는지 궁금해요.

W: 오, 전혀 우습지 않아. 우리 코에 있는 이 두 개의 구멍은 사실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단다. 그것들은 우리가 숨을 쉬고 후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B: 그런데 왜 구멍이 두 개나 필요하죠? 코 가운데에 큰 구멍이 하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W: 흥미로운 생각이구나! 두 개의 구멍은 공기를 여과하고 뇌로 냄새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번갈아가며 활동한다. 하나의 구멍이 활동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휴식을 취하지.

B: 그게 무슨 말씀이죠? 둘이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인식을 못했어요. 둘 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W: 내 말은, 하나의 구멍은 쉬더라도 완전히 쉬진 못해. 그래서 쉬는 동안에도 필수적인 기능을 계속 수행한단다.

B: 오, 알겠어요.

04 → 빈칸 앞의 말로 미루어 보아 문맥상 ③ '흥미로운 생각이구나!'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① 바보 같은 질문이구나!

② 확실히 더 좋네!

④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

⑤ 네 말에 완전 동의해.

05 → ⑤ 콧구멍 두 개 중 하나가 활동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쉬는 동안에 완전히 쉬지 않고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고 했다.

06 → '-하는 게 어때?'라고 제안하는 표현은 Why don't you ~?이다.

07 → ④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 앞에 오면 「부사구 + 동사 + 주어」의 순서가 되므로 At the edge of the forest stood a group of hikers ~가 되어야 한다.

① 일반동사가 있을 때 부정어가 문두에 오면 「do/does/did + 주어 + 동사원형」의 어순이 되므로 did I know는 적절하다.

②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친구들이 응원하는' 능동 관계이므로 cheering은 적절하다.

③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장바구니는 채워지는' 수동 관계이므로 filled는 적절하다.

⑤ 부정의 의미에 가까운 Only 부사절이 문두에 있으므로 「부사절 + can(조동사) + he(주어) + join(동사원형)」으로 도치된 것은 적절하다.

① 나는 엄마가 방에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② 친구들이 옆에서 그녀를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가능한 한 우아하게 춤을 추었다.

③ Mark는 장바구니에 식료품을 가득 채우고 서둘러서 움직였다.

④ 숲 가장자리에는 등산객들이 불 위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서 있었다.

⑤ 그는 집안일을 끝내야만 친구들과 영화 보는 밤을 함께할 수 있다.

08 • 학생들이 종합적인 학습 경험을 위해 적극적으로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가 매력적인 멜로디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 목적격」으로 나타낸다.

[09-10] 공부하기 더 좋은 환경은 시끄러운 곳과 조용한 곳 중 어디일까? 심한 소음은 불쾌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때문에 심한 소음을 참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발명했고, 그것은 원하지 않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현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 성취의 이면에 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소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보자.

09 → ① 부정어가 문두에 오면 일반동사가 쓰인 경우 「부정어 + do 동사 + 주어 + 동사원형」의 어순이 되므로 Rarely do people want가 되어야 한다.

10 → 밑줄 친 this는 앞 문장에 언급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발명한 과학적 원리’를 가리킨다.

[11-13] 소리는 예를 들어, 기타 줄이 연주될 때 같이 음원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통해 생성된다. 돌을 던졌을 때 호수에 발생하는 잔물결처럼 음원의 진동으로 공기가 진동하고 소리가 파도처럼 이동한다. 이 음파가 우리 귀에 도달하면 뇌는 이를 소리로 해석한다. 물에 두 개의 돌을 던지면 서로 다른 물결이 겹쳐질 수 있는 것처럼, 음파도 만나면 서로 간섭할 수 있다. 간섭에는 두 가지 종류, 즉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있다. 보강 간섭은 두 파동의 마루가 겹쳐질 때 일어나 파동이 더 커지고 소리가 더 커진다. 반면에, 상쇄 간섭은 한 파동의 마루가 다른 파동의 골과 겹쳐질 때 일어나 서로 상쇄되어 더 작은 소리가 나거나 전혀 소리가 나지 않게 된다.

11 → ② 동사 cause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raveling을 to travel로 고쳐야 한다.

12 → ‘뇌가 음파를 소리로 해석한다’라는 의미로, 앞 절의 these sound waves(음파)를 가리킨다.

13 → ⑤ 두 파동의 마루가 겹쳐질 때는 상쇄 간섭이 아니라 보강 간섭이 발생한다.

- ① 소리는 음원의 진동으로 생성된다.
- ② 음파가 우리 귀에 도달하면, 그것들은 뇌에 의해 소리로 해석된다.
- ③ 음파는 만나면 서로 간섭할 수 있다.
- ④ 보강 간섭은 더 큰 소리를 만든다.
- ⑤ 상쇄 간섭은 두 파동의 마루가 겹쳐질 때 생긴다.

14 유명한 독일 음악가 Johann Sebastian Bach가 언젠가 ‘모닝커피가 없다면, 나는 그저 말라비틀어진 염소 고기와 다름 바 없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이러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커피숍이 거리마다 생겨나고 있다. 도시인들이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국제 커피 기구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대략 100억 톤의 커피가 소비되었다. 한국인들은 150,780톤의 커피를 소비하며 이 거대한 총량에 큰 기여를 했다. 이는 한 국 성인 한 명당 일 년 내내 하루 평균 한 잔의 커피를 마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한국인과 다른 전 세계인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다.

→ 주어진 문장의 This는 ⑤ 앞의 내용인 ‘한국인들이 150,780톤의 커피를 소비하며 거대한 총량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가리키므로 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5-16]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음악 기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개 매우 시끄러운 관광지의 매표소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이 기술을 이용한다. 매표소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외부 소음을 감지하고, 반대 음파를 생성하여 스피커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매표 직원에게 고객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해 준다. 이 기술이 사용되는 또 다른 분야는 드라이브스루 패스트푸드 식당과 커피숍이다. 그들은 차량 소음을 제거함으로써 직원과 고객 사이의 의사소

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사용한다.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은 드라이브스루 직원이 주문을 정확하게 받는 데 도움이 된다. 같은 기술은 자동차에도 사용되는데,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이 엔진, 바람, 도로 소음과 같은 불쾌한 소음을 상쇄하기 위해 파동을 발생시킨다. 노이즈 캔슬링 장치 덕분에 운전자가 산만한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다.

15 → 음악 기기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대한 내용이므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음악 기기를 넘어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다.

- ① 음악 기기의 진화
- ②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의 영향
- ③ 노이즈 캔슬링 기술의 역사
- ④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강화

16 다음 중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⑤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다.

- ① 음악 기기
- ② 관광 명소의 매표소
- ③ 드라이브스루 패스트푸드 음식점
- ④ 자동차 산업

[17-19] 커피박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진다. 그 곳에서 커피박은 분해되면서 이산화 탄소보다 약 25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테인을 방출한다. 일부 커피박은 매립되는 대신 소각되지만, 이는 1톤당 338kg이나 되는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방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쓰레기 관리 선택지 중 어느 것도 커피박의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커피박이 가치 있는 유기 화합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그저 소실된다. 다행히도, 커피박 문제에 대한 높아진 인식 덕분에 전 세계의 기업, 단체, 정부들이 순환 경제 대책을 통해 커피 산업의 환경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17 → ③ incinerate는 ‘소각하다’의 의미로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의 cherish와 관련이 없다.

- ① 매립지 ② 대략 ④ 가치 있는, 소중한 ⑤ 개선하다

18 → 앞에는 커피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오고, 뒤에는 커피박이 함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물질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오므로 역접의 연결사 ① However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② 따라서 ③ 결과적으로 ④ 예를 들어 ⑤ 비슷하게

19 순환 경제는 가능한 한 오래 자원의 재사용을 (A) 장려하여 쓰레기와 환경 비용을 (B) 줄인다.

→ 순환 경제가 커피박 문제를 개선하는 대책으로 언급되었으므로, 순환 경제는 자원을 재사용하도록 장려하고(promotes), 쓰레기와 환경 비용을 줄인다(reducing)는 내용이 되어야 적절하다.

20 실행되고 있는 순환 경제의 예시는 한 커피숍 체인이 커피숍에서 나오는 커피박을 수거하기 위해 한 단체와 (A) 협력할 때 발생한다. 이 커피박은 불순물을 (B)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건조된다. 그 결과로 얻은 커피박은 비료 회사에 판매되어 유기농 비료로 변환된다. 이 비료는 후에 커피숍 체인

에 다시 판매된다. 체인은 비료를 지역의 친환경 농부들에게 제공하고, 농부들은 그들의 생산물을 다시 체인에 (C) 판매한다.

→ (A) 커피숍 체인이 한 단체와 ‘협력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collaborates가 적절하다. interfere는 ‘간섭하다’라는 의미이다.

(B) 불순물을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remove가 적절하다. add는 ‘첨가하다’라는 의미이다.

(C) 농부들이 생산물을 다시 ‘판매하다’가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sell이 적절하다.

[21-22]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커피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커피박의 새로운 용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커피박과 같은 재료를 재활용함으로써, 개인들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커피박의 재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커피 소비 방법을 촉진할 것이다.

21 →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이어 개인의 경우가 언급되므로, 커피박과 같은 재료를 재활용함으로써 개인들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적절하다.

- ① 커피 맛을 향상시킨다
- ② 커피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 ③ 지역 커피 농부들을 지원한다
- ④ 커피 원두 품질을 향상시킨다

22 커피박 재활용에 관한 한국의 늘어나는 관심

→ 한국이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부연 설명하므로, ‘커피박 재활용(Recycling)에 관한 한국의 늘어나는 (Increasing) 관심(Interest)’이 제목으로 적절하다.